

코스콤, 핀테크 전문인 양성위한 ‘인턴십 코스 교육’ 성료

»» 프레스룸

금융IT 발전을 위한 코스콤의 다양한 활동들을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



금융위 주최 교육 사업...3년 연속 실무 수행

수료생 대상 28개 기업에서의 인턴 연계 진행

코스콤(사장 홍우선)이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핀테크 인턴십 코스’교육을 성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핀테크 인턴십 코스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이사장 변영한)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금융IT 전문 기관인 코스콤이 인턴십 교육 실무 수행을 맡아 3년째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다.

지난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3기를 맞은 핀테크 인턴십 코스는 타 교육과정과의 차별성을 앞세워 수료생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올해 3기에는 해외대학 3개 대학을 포함한 총 49개의 대학 79명 교육생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해당 교육과정은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플립러닝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커리큘럼은 수행기관인 코스콤의 신입사원 교육방법론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역량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수료생 중 인턴십을 희망하는 교육생이라면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핀테크 인턴십 매칭데이’ 행사를 통해 우수한 핀테크 기업에 인턴 체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코스콤을 포함한 쿼티, 페이히어,페이워치코리아, 깃플 등 28개 기업이 인턴십 기업으로 참여하며, 인턴십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로, 교육생들은 평소 꿈꾸던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현장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

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해를 거듭하면서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핀테크 인턴십 코스가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의 사관 학교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본 과정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취업한 수료생이 본 과정의 멘토나 강사로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